

# “향토기업이 잘돼야 전주 경제 뿌리가 튼튼”

## 현안 해결·국가 예산 확보 ‘국회 공조’

윤동욱 전주 부시장, 국회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

우범기 전주시장, 강한 경제 구현 위해 지역 대표 제지기업 ‘전주페이퍼’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향토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0일 전주지역 대표 장수기업인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장이 직접 지역 산업의 근간인 향토기업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시장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시장은 심철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전주페이퍼는 전주를 방문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전주지역 대표 장수기업인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광객들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한지박물관에 대한 지원과 공업용수 절감 노력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현실화를 시에 건의했다.

특히 시는 이날 기업이 제시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간담회 직후에는 생산 현

장에서 팜 흘리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로비에서 임직원 50여 명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동감을 확인했다.

이어 우 시장은 공장 내 전주한지박물관을 방문해 지역 문화 자산 보존에 기여하는 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4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전주페이퍼는 신문 용지와 골판지 원지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향토 제지 기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페이퍼와 같은 향토기업이 잘돼야 전주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산적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사업 관련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필요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관람개비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시정계획 반영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전주역사 ‘서가가 있는 공간’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

권희성 기자

차 이전과 전주권 광역교통 시정계획 반영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전주의 첫관문인 전주역사에 ‘서가가 있는 공간’을 조성해 ‘책의 도시 전주’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전북권 보존병원 설립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 기술(AI, VR 등)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 영화·영상 제작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와 보존의료 사각지대인 전북권 내 보존병원 설립을 위한 ‘전북권 보존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산업도시로 도약’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신년 브리핑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제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깊이와 미래산업의 혁신을 더해 문화가 경제가 되고, 관광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K-컬처 산업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0일 문화체육관광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산업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은 △세계를 견인하는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조성 △세계가 찾는 전주의 맛과 멋이 있는 전주미식관광도시 구현 △세계 속의 전주,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세계를 향한 도전, 스포츠거점도시 도약이다.

먼저 시는 2026년을 문화가 산업으로 확장되는 전환기로 설정하고, 창작 중심의 문화정책을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되는 산업 구조로 연결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팔복동 일원에 조성 중인 미래문화 생산거지는 창작·전시·공연·체육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콘텐츠 생산



전주시는 20일 문화체육관광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산업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부터 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주형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기존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착공 예정인 음식관광 창조타운을 중심으로 전주의 미식 자산을 콘텐츠화하고,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 전주

미식관광 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방문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분향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천년 역사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장하는 역사문

화도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K-한지마을 조성 △한지문화예술촌 및 다나루 정관림 조성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등을 통해 전통한지를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K-컬처 산업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스포츠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아 국제스포츠 중심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범시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2026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을 차질 없이 준비·개최해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등 핵심체육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는 2027년부터 스포츠 중심도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전통문화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체육이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끄는 K-컬처 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2026년은 전주의 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청년참여예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는 청년이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해법을 찾는 청년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한 ‘2026년 청년참여예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획·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부터 실현까지 해보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공모 방식으로, 시는 올해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 발굴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공모는 총 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선정된 단체에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하반기 공모 주제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참여형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주거·생활 안정·마음 건강·환경·기후 등 지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형 사업을 비롯해 청년의 창업 도전과 초기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창업 연계 사업도 포함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예비 신혼부부 웨딩컨설팅·예식비용 일부 지원

전주시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을 개방한 데 이어, 예비 신혼부부의 편의를 위해 웨딩컨설팅과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예식장 대관사업을 통해 전주시 공공시설 8곳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민간 웨딩업체와의 협

력을 통해 결혼 비용에 대한 표준가격(안)을 마련해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예식 장소에 적합한 웨딩 컨설팅(예식 연출, 진행, 관리, 꾸밈 등)을 제공하고, 전주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부부에게 예식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